대학생 작문 분석 기반 글쓰기 교육 연구*

- 대학생 서평 작문 분석을 대상으로 -

서수백**

〈차 례〉

1. 머리말
2. 분석 자료와 방법
3. 학습자 요구 분석
4. 대학생 작문 분석
5. 글쓰기 수업 활동 제안
6.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 분석과 서평 작문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글쓰기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글쓰기 교육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과정은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작문 제출을 하면서 자신의 글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글쓰기 전반에서 익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이것은 본격적인 작문 분석과 함께 학습자의 글쓰기 태도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2017학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 sbseo93@cu.ac.kr

를 진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알려 주며,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학습자 요구로는 장르에 부합한 글쓰기를 비롯해 인상적인 제목 쓰기, 소통되는 글쓰기, 올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분 등의 내용이 있었다. 대학생 서평 작문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도서의 줄거리, 저자 등 정보의 단순 나열과 인용이 주된 독서보고서식 쓰기 양상이었다. 그 외 독후감상문식 쓰기, 도서 내용에 대한 피상적 해석의 쓰기, 서평 장르 어법에 맞지 않는 쓰기, 지나친 장문으로 모호한 의미의 글쓰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고 본고에서는 효과적인 글쓰기 수업 방법으로 '그룹별 작문 분석 활동'을 강조한다. 이는 장르 인식을 우선으로 하면서 글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자유롭게 분석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의 글쓰기능력을 키우고 글을 보는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장르, 서평, 어법, 소통, 요구 분석, 작문 분석 활동

1. 머리말

본고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는 원론적인 목적 아래 연구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소통의 과정이 매우 생략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초보 사회인인 대학생들에게 소통의 능력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소통의 능력은 교육의 과정에서 꾸준한 연습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두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어체 글쓰기 능력은 이질집단 간의 사회적 소통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한 소통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새롭게 접하는 장르의 글을 쓸 때 장르에 대한 이해나 올바른 문체와 어법과는 거리가 먼 기존의 익숙한 글쓰기 방법 내지는 개인적인 습관대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음을 대학생 작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학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자 분석과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고도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다. 사회구성주의 글쓰기 인식과 장르 지식이 소통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데 근거해, 대학생 서평 작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르와 독자 중심의 글쓰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고자 한다.

2. 분석 자료와 방법

본고는 '장르의 이해와 실전'을 강조하는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생 작문을 접해 봤을 때, 개별 장르의 형식과 내용, 기능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변별적인 글쓰기를 하지 못하거나 국어 어법의 혼동으로 의미 전달과 이해가 어려운 글쓰기 양상을 파악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특히 독후감상문 쓰기와 서평 쓰기, 자서전 쓰기와 취업목적 자기소개서 쓰기와 같은 공통적 요소가 있는 장르 사이에서 구별된 글쓰기가 더욱 취약하다. 이에 대학생 작문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짚고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고 이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적용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 분석한 자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17년 1학기 글쓰기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서평' 102편이다.[1] 교과목 수강자의 80%가 1학년이고 20% 정도가 그 외 학년으로 분포되어 있다. 서평 과제는 학생들에

게 학기 초에 공지를 하고 15주차에 최종 제출한다. 과제 제출 시 자신의 글쓰기에서 부족한 점과 익히고자 하는 점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 요구 분석을 위한 것으로 교수자가 작문 분석과 평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작문 분석에서 파악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글쓰기 수업 방법을 제안한다.

3. 학습자 요구 분석

본격적인 작문 분석에 앞서, 작문에 대한 자기 평가와 요구 등을 알아보는 학습자 요구 분석 과정을 거쳤다.[2] 이 과정은 '효율적인 글쓰기 교육'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적으로 인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자 요구 분석의 과정이 글쓰기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의 성과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작문 과제 제출 시 '글쓰기에서 어려운 점이나 알고 싶은 점',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글쓰기의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

1)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글쓰기 교과목의 과제로 서평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이중 서평은 다수의 일반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글로서 객관성을 지닌 문체로 유의미한 도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평자가 제공하는 책의 형식정보와 내용정보 중 서평에는 비평적 관점의 내용 기술이 핵심 정보이다. 따라서 서평은 쓰기능력뿐만 아니라 서평 장르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읽기의 능력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장르이다. 개인적 감상 위주인 감상문보다 더욱 폭넓으면서도 세심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장르가 서평이다. 대학생들이 서평 쓰기를 완성해 내면서 읽기능력과 여타 장르의 글쓰기에 대한 인식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글쓰기에서 핵심 교육 장르이다.

2) 대학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자 요구 분석의 과정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학습자 요구와 작문을 대응하여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 요구는 한 가지로 분명하게 제시하기보다 대부분 복합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습자 요구 내용으로는 장르에 부합하는 글쓰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3] 그 외 문맥의 연계성에 대한 요구, 올바른 문장 쓰기의 요구, 인상적인 제목 쓰기,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사용, 단락 쓰기, 한글맞춤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 구체적인 글쓰기 항목은 아니지만 자신의 글쓰기 태도와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요구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한다.[4]

1) 장르 부합성

- 서평 쓰기가 처음이라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
- 서평을 쓸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고, 내 생각만을 강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 서평을 처음 써 보아서 글의 흐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책의 줄거리만 나열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옳고 그

3) 학생들의 요구는 다소 일반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르에 대한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장르와 독자 중심의 글이 좋은 글이라는 인식을 갖고 글쓰기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교수자는 학생 작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장르 글쓰기 교육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요구분석과 학생 작문 분석, 글쓰기 교육 방법 모색이 연계성을 지닌다.

4) 도표나 그래프를 통한 이해보다 학습자 요구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학습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글맞춤법이나 중복 표현, 경어체 등을 일부 수정하고 대체로 학생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름을 따지기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서평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서평에 어긋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서평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뜬금없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
- 서평과 독후감의 차이는 알고 있었으나 자꾸 독후감 쪽으로 글이 흘러갔고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지 어려웠다. 또한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많이 하였다.
- 서평의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용을 썼는지 알고 싶다.
- 쓰다 보니 너무 책의 내용만 베껴 쓴 것 같다. 글의 주제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서평이라고 보기엔 비판적인 평가나 작가 소개, 책을 분석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 쓰다 보니 이것이 비평인지 독후감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서평으로서 적절한지 궁금하다.
- 처음 써 보는 서평이라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렵다. 하지만 서평을 쓰는 것이 다른 글을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학습자 요구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항은 '장르'에 맞는 글쓰기이다. 102명 중 34명이 서평으로서 적합한 내용과 형식, 표현에 대한 요구를 적었다. 책을 읽고 쓰는 글이라는 점에서 독후감 상문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감상'이 아닌 '비평'을 중심으로 써야 하는 글이 서평이다. 학생들은 이 새로운 장르를 접하면서 장르 인식을 가지고 보다 성숙하고 폭넓은 글쓰기를 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전달력

- 글을 쓰고 난 후 다시 한번 읽어 볼 때에 내 글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많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긴 글을 쓰고 싶다.
- 읽기 쉽고 이해가 쉬운 글을 쓰고 싶다.
- 내가 글을 써 놓고도 내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고민이다.

- 글의 내용이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적었는지 알고 싶다.
-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잘 전달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다른 사람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재미가 있고 가독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는 글을 쓰고자 하는 요구가 102명 중 10명이 있었다. 이는 글쓰기의 본질적 기능인 소통력과 전달력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소통력과 전달력을 갖춘 글은 내용 구성과 형식의 정밀함, 표현력까지 요구하는 광범위한 문제이면서 일차적인 글쓰기 능력이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소통의 글에 대한 책임이 필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글의 난해함과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다.

3) 인상적인 제목

-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목 정하기
- 제목을 잘 정하지 못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글 내용과 관련된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글의 제목 쓰기에 대한 요구도 6명이 있었다. 이는 전략적 글쓰기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 제목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글 전체에 대한 가독성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제목을 쓰고자 하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4) 적절한 어휘 사용

- 어휘 사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
- 단어 선택, 글의 문맥과 맞는 접속사를 활용하였는지 알고 싶다.

- 상황에 맞는 어휘와 문체로 바르게 썼는지 궁금하다.
-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썼는지 궁금하다.
- 문장 속 쓰인 단어가 맥락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다.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 사용에 대한 요구가 8명 있었다. 각종 통신어와 줄임말, 신조어가 난무하는 현대 언어 사용의 실태에서 학생들은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글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어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형태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거나 문맥적 의미와는 상관없는 단어를 쓰는 오류도 있다. 올바른 어휘 쓰기에 대한 요구는 어휘가 의미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과 문어체 글쓰기의 표현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단락 쓰기

- 서론 쓰기가 어렵다. 글의 도입 전개 결론 등 단락 쓰기가 어렵다.
-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하였는지...
- 소주제와 뒷받침 문장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다.
- 도입과 마무리 부분이 어중간하게 끝나는 것 같다.
- 도입 부분에서의 말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구성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

16명의 학생이 단락 쓰기에 대한 요구를 적었다. 단락 쓰기는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 기본적으로 소주제가 달라지는 단락 나누기를 비롯해 개별 단락이 긴밀하게 갖추어 써야 하는 소주제와 뒷받침 문장의 구성, 단락과 단락 간의 의미적 연계성, 글 전체의 단계별 단락으로서의 기능과 형식에 맞는 내용 구성 등이 모두 단락 쓰기에 해당된다. 학생들의 요구에도 이들 내용들이 골고루 나타났다. 학생들은 들여쓰기를 해야 하고 균형 있는 분량으로 하나의 소주제와 뒷받침 문장으로 쓰는 것이 단락이라는 단락의 개

념과 형식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의 내용을 갖추어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또한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문장 쓰기

- 문장이 문맥에 맞는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올바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다.
- 앞뒤 문장의 흐름이 잘 어울리는지도 알고 싶다.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맞는지 등을 알고 싶다. 비문을 올바르게 고치고 싶고 빼거나 더할 문장이 없는지 궁금하다.
- 매끄러운 문장 쓰기

문장 쓰기에 대한 요구를 쓴 학생은 11명이다. 문장은 발화의 기본 단위로서 문맥과 맥락을 형성한다. 따라서 유연한 의미 전달과 이해가 되는 글을 쓰는 데 있어 올바른 어휘 사용만큼 중요한 것이 문장 쓰기이다. 올바른 문장은 조사와 어미 등 문법 요소를 어법에 맞게 사용하고 글의 맥락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의미 연결이 되는 것이다.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풀어 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은 문장 쓰기를 해결하는 것이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학습자 요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7) 연계성

- 내용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싶다.
- 문맥의 자연스러움
-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알고 싶다.
- 자연스러운 글의 연결

연계성을 갖춘 글을 쓰고자 하는 요구를 8명이 적었다. 이는 올바른 단락 쓰기와 문장 쓰기가 기본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요구로서 내용 구성 즉 개요 작성과도 관련된 요구로 볼 수 있다.

8) 논리적 구성

-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 글을 조리 있고 깔끔하게 쓰는 법을 알고 싶다.
-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

글의 '논리성'도 기본적으로 문장 쓰기와 단락 쓰기를 바르게 해야 가능하다. 또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서는 글의 개요를 정밀하게 작성하며 내용적 논리를 합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복합적인 요구 기술이 많은 가운데 논리적 구성에 관한 요구를 쓴 학생은 10명이다.

9) 한글맞춤법

- 오타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싶다.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 띄어쓰기는 알맞게 했는지

한글맞춤법에 대한 요구는 9명이 있었다. 장르 이해와 담화 능력이 강조되는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은 바른 표기나 띄어쓰기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있다. 그것은 한글맞춤법을 잘 갖추어 쓰는 것이 의미 형성의 기본이며 글이 더욱 정제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교육은 글쓰기 형식의 기초에 치우친 것으로 여겨 교수요목으로서 중요성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글쓰기

교육 현실에서 세심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한글맞춤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바른 어휘 사용 문제와 함께 문어체 글쓰기 수행능력을 위해 글쓰기 교육에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학습자 요구일 것이다.

10) 기타

- 평소 글쓰기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주제를 정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
- 전반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내용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으로 적지 못해 부족한 것이 많다. 불필요한 내용을 적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
- 글을 막힘없이 쓸 수 있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보지 않고도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 글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다. 스스로 글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방법
- 글을 쓰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개요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개요를 확실히 짜려다 보니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좋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인지...
-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 센스 있게 썼는지 알고 싶다.
- 책 내용이 많아서 요약하는 것도 어렵고 다 중요한 것 같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타의 항목으로 분류한 학습자 요구는 특정 영역을 짚어 쓰지 않고 글쓰기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 고백적으로 쓴 요구들이다. 글쓰기 방법론 자체에 대한 이해와 실천, 주제 집약적인 글쓰기, 표절이나 과도한 인용의 문제, 생각과 표현의 문제, 창의적인

내용 구성, 글쓰기를 위한 준비 활동 등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들이다.

4. 대학생 작문 분석

이 장에서는 대학생 작문 실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쓰기 경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글쓰기 수업 방법을 찾고자 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2017년 1학기 글쓰기 과제로 제출한 서평 작문 102편 중 문제점이 드러나는 일부의 작문을 제시한다. 서평 과제는 1권의 책을 읽고 2,0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쓰는 것으로 학기 초에 제시하여 학기말에 제출한다.[5] 이것은 교과목 수강생이 대부분 1학년으로 대학 입학 후 새롭게 접하는 서평 장르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제출 기간을 길게 두는 것이다.[6] 과제를 제출하기까지 학생들은 수업에서 서평 이론을 학습하고 관련한 예시 작문들을 통해 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는 활동 등을 한다.

대학생 작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점은 크게 '장르'와 '어법'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은 독후감상문과 혼동하는 가운

5) 학생들은 과제 제출 전 글쓰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첨삭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 여부는 센터에 확인할 수 있지만 필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제출된 과제 중에는 피드백을 받지 않고 제출한 작문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작문 중에도 1차 피드백을 안 받은 작문이 있다. 학생 작문과 피드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차후 과제에서 밝히기로 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학생 작문 분석 결과는 글쓰기 평가와 진단의 기초 자료가 되어 글쓰기교육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6) 대상 작문의 필자 102명 중 1학년이 80%가 넘고 그 외 학년이 20% 정도이다. 서평 작문에서는 취업 목적 자기소개서와는 달리 학년에 따른 글쓰기 수준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의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취업 목적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4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글의 체재나 내용 구성에서 노련미가 드러났다.

데 서평 장르에 맞는 내용 구성이나 문체 사용이 서툰 것이 많고,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의미가 모호하거나 문맥 연결이 어색한 부분도 많다. 특정 장르와 어법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작문이 다수 나타났다.[7)]

학생 작문 분석의 기준으로 전문가 서평 1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서평 작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문가 서평 예시

『간디의 물레』 김종철, 녹색평론사, 291쪽, 8,000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희망을 위한 영혼의 외침

『간디의 물레』에 담긴 34편의 에세이는 어느 것을 읽어도, 그 하나 하나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다. 글 속에 배어 있는 저자의 섬세한 관찰력, 사유의 타당성과 투명성, 문장들이 풍기는 문학적 향기도 물론 훌륭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명사적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서 저자가 느끼는 사명의식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놀라운 흡입력으로 빨아들인다.

저자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간디의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근원적 변화만이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타기를 거부하는 뉴욕의 어느 기이한 대학 교수나 영국의 한 시골을 녹색 운동의 메카로 만든 인도인 '쿠마르'를 통해 종말론적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극복 방법을 제안한다.

이 책은 통일적인 학술 저작이 아니기에 글 하나하나를 떠받치는 건축학적 구조가 없던 단편적이고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적

7) 작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한 가지 문제 양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류 예시 작문을 크게 '장르 쓰기의 문제'와 '어법 쓰기의 문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세부 항목별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통일성의 부재는 저자의 일관된 주제 의식을 통해 충분히 상쇄할 만하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이다. '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라는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희망'은 생태문화적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인간에 대한 모욕〉에서 재일교포 작가 이회성 씨가 우체국의 원고 분실 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취했던 태도에 대한 일화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현대인의 사유를 비판하고, 〈어머니의 이기심〉에서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이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고무신 두 켤레〉라는 글에서 고무신을 벗고 택시를 탄 시골 할머니와 술만 먹고 나면 언제나 신발을 잃어버리는 故김관식 시인의 일화를 통해 "물건을 아끼고, 삼가고, 수줍어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겸허한 인생태도의 편린"이라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모든 글이 재미있고 교훈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깊은 사색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에세이집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세상에서 합법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은 진리를 위한 경쟁'이라는 저자의 믿음은 황폐해진 오늘날의 인간과 자연과 세계를 떠올릴 때 가슴을 울린다. …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책이다.[8]

제시한 전문가 서평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 구성이나 문체의 사용에서 서평은 독후감상문과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서평은 필자 중심의 감상 위주의 내용이 아니라 독자 중심으로 해당 도서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휘 사용이나 문체가 객관적이며 내용 또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서평의 핵심 기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8) 박이문(2008),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pp.138~141, 베스트프렌드.

2) 장르 쓰기의 문제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에 와서 새롭게 접하는 장르인 서평을 쓰는 데 있어 그 이론을 학습한 후에도 독후감상문 쓰기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서평 작문에는 해당 도서의 저자, 줄거리, 구조 등과 같은 객관적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독서보고서식 쓰기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나열된 독후감상문식 쓰기 양상이 빈번히 나타난다. 장르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사회적 글쓰기능력으로서 소통의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장르의 강조는 역량 있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교육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작문에 나타나는 장르 쓰기 오류를 짚어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선행과정일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서평 작문에 나타나는 장르 쓰기의 문제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서평을 쓰게 되었고『대통령의 글쓰기』를 읽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던 강원국 비서관이 쓴 책이다. 하지만 두 대통령의 책이라 할 만큼 **두 분의 이야기가 많다.** ... 대통령 모두 책읽기에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생겼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며 더욱 책을 가까이 할 시간을 스스로 없애고 있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과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글쓰기를 어렵게 생각했고 힘들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서평 과제를 힘들어한 이유 중 하나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스마트폰을 가까이 했고, 책은 멀리했다. 글을 쓰기 위한 원천은 독서라 했는데 그 독서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지식이 부족했다. ...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나는 흥미가 없었다. 책을 선택하고 읽기 시작했을 때 관심도 없고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관심이 없었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글쓰기에 대한 책이었지만 읽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흥미를 느꼈다. 잘 몰랐던 대통령 두 분의 에피소드와 재치를 알게 되었고, 글을 쓸 때 이러한**

노력을 했고 글쓰기에 열정이 대단했다. 욕심을 버리고, 오래 생각하고 글을 잡고 있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글쓰기는 어렵지만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책이었다.

-『대통령의 글쓰기』 서평 -

이 글은 강원국의『대통령의 글쓰기』를 읽고 쓴 서평이다. 서평 전 문을 보면 제시한 부분 이외 대부분이 단순 인용으로 되어 있다. 서평으로서 주관적인 자기 감상적 내용 기술이 많은 것도 이 글의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교과목 과제'라는 점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책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해당 도서를 읽은 서평자의 느낌이나 깨달은 바를 쓰는 것이 서평에서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독자 중심으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서평의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독서감상문적인 표현법일 것이다.

전문가 서평 예시와 비교할 때 문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저자에 대해서는 존칭을 쓰지 않았지만 책의 주인공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 분'이라고 존칭을 썼다. 이는 비평의 공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대 표현을 쓰지 않는 서평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가?

처음 시작부터 미움 받을 용기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말을 하고 있나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기에 글을 쓸 때마다 상을 받아왔고 자연스럽게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상을 못 받기 시작했고, 한 친구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었지만 그 친구가 나랑 같은 주제로 쓴 글을 읽어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 글은 간단명료했고 누가 읽어도 감동적 이었다. 그에 비해 나의 글은 복잡했고 여운이 없었다. 그 때부터 글을 쓸 때 자신감들이 불안감으로 변했고 두**

려웠다. 선생님의 한마디 "글을 쓸 때 양으로 쓰지 말고 질이 좋은 글이 나오도록 노력해보아라" 그 말은 나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재능이 없는 것 일까? 말 과 글로 아이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나의 꿈인 국어교사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될 무렵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내 눈에 띄었다. 누구보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던 나는 망설임 없이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서평 -

이 글은 인상적인 제목이나 도입의 두 문장은 서평으로서 적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하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독후감상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자기 고백적인 표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문체 사용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상을 못 받기 시작했고', '친구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나랑 같은 주제로'와 같은 장르에 부적합한 구어체 표현이 그대로 쓰였다.

⑶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때 선생님께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때 당시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저자는 무슨 의미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 **큰 뜻을 두지 않은 체 그 속의 장면들만** 보았다. 그래서 그런지 책으로 이 이야기를 접한 친구들과 달리 이 이야기에 대해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에 와 서평이라는 과제를 받았다.** 처음에는 **어떤 책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도중** 고등학교 시절 찝찝하게 남아있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떠올랐고 나도 원작을 한 번 읽어 보고 이 이야기의 속뜻을 한 번 **알아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

-『오만과 편견』 서평 -

이 글에도 독후감상문식 표현이 많다. 서평 대상 도서를 읽게 동기를 개인적인 경험으로 상세히 기술하였고, 과제를 위해 책을 읽었다라는 표현도 한다. 글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필자 중심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서평을 쓰면서 서론에서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는데, "과제이기 때문에 선택

하여 읽었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솔직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평은 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독자 중심의 장르다. 책의 메시지와 관련한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책은 꼭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사회 조직 단체, 또는 작은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되는 책입니다.** … 군주론이라는 책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00년대 책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을 보면, 정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악해지고 잔인해지더라도 군주는 나라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모임과 생활 속 모임 가운데에서 리더의 자리를 많이 맡아 보았고 또 그런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보인 리더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이니 그룹을 이끌어 나갔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 『군주론』 서평 -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쓴 서평이다. 이 글이 처음부터 어색한 것은 경어체를 썼기 때문이다. 주어에 1인칭 겸양 표현인 '저'와 종결어미에 합쇼체를 쓰는 등 장르 특성에 맞지 않는 경어체를 사용하였다. 이 글의 '저는~~입니다/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글 전체가 독서보고서나 독서감상문과 같게 한다.

(5) **저는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꼭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는 마냥 저자의 생각을 독자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묻고 또 답을 하며 읽는 책이라는 점이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매력이었습니다.** ...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지만 책을 읽고 나서도 아쉬웠던 점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질문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에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개개인이 노력해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지필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

라는 특히 질문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유 또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대다수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항상 강의가 끝날 때 "질문 없나요?"라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질문을 많이 하시던 몇몇 분들께서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묵묵부답으로 질문시간이 끝났습니다. 저 또한 대충 이해했으니깐 안다고 생각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질문에 대한 두려움의 심각성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서평 -

이 글에서도 1인칭 겸양 표현인 '저'와 합쇼체 종결어미를 썼다. 또한 "딱 한 가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 "진짜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해했으니깐"와 같은 구어체 표현도 그대로 쓰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경험 기술 등 전반적으로 서평 장르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 많다.[9]

(6) **이번 글쓰기 과목의 서평 과제를 위해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라는 책을 선택했다.** 어릴 적 위인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으며 알게 된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뛰어난 학술적 연구를 통한 학자들보다는 **오로지 타인에게 헌신하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더욱 관심이 가고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바쳐 애쓰셨다는 것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삶을 바쳐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살아간 마더 데레사의 **여러 일화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종교를 초월하여 희생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보살핀 데레사 수녀에게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느꼈다.** 90쪽 내외의 짧은 책이었지만 그녀의 일화와 가치관, 생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 이 글은 장르 쓰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법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법의 문제는 다음 항목 '어법 쓰기' 문제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문장 어법 오류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는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더욱 깊고 자세히 알기에는 아쉬운 분량이었다. 가볍게 마더 데레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서평 -

이 글에서도 서평을 쓰게 된 동기를 과제 때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개인적 느낌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메시지를 폭넓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더 데레사에 대해 '알았다', '알고 싶다면' 정도의 서평을 하고 있다. 이 또한 독자 중심의 서평 장르와는 거리가 먼 독후감상문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 … 네 번째로, 범주에 맞게 써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글쓰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범주'를 잘 모르면 뒤죽박죽으로 글을 쓰기 쉽다. … **나는 딱 네 번째 원칙을 읽고는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민아, 엄마친구아들 종은이는 대학을 그렇게 잘 갔는데 넌 너무 아쉽다."라고 하셨지만 엄마가 하신 말씀은 명백한 범주오류이다. 종은이는 운동선수로서 대학을 잘 갔지만 나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통점이 충분해야 비교의 효과도 생기지만 이런 비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부터 엄마가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 명백한 범주오류라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 『글쓰기 기본법』 서평 -

이 글은 개인적인 사례를 책의 내용과 견주어 기술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례 제시가 독자들이 책의 내용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서평 장르가 가지는 객관적인 표현으로서의 내용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필자 중심의 창의적 흥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양식도 서평 장르의 표현으로는 부적합하다.

(8) **처음에 교수님이 도서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이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한번 접해 보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난쟁이 가족

이 집을 가지고 분쟁하는 이야기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나를 책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 이 책은 사회 하류층에게는 위로를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상류층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아무리 일해도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소시민들과 하루 종일 낭비하며 살아가는 상류층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빈민층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빈민층을 돕는 정치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그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한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서평 -

이 글은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이 독서감상문식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본론의 내용은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글의 대상 도서는 조세희의『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0]인데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만큼 폭넓은 독자층과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관점의 서평이 필요한 도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글을 쓴 학생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독후감상문식 표현으로 씀으로서 결국 독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없는 글이 되었다.

(9) **서양미술사의 100장면에 나오는 여러 작품 중 눈에 띄는 작품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살펴보았다.**

이 유물은 원시 시대의 조각이며,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가의 철도 공사 때 발견된 유물이다. 당시의 미술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 조각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진 미술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조각은 돌로 조각되어있고, 손보다 작은 사이즈이다. 얼굴의 묘사보다는 몸의 특징을 부각시켜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생략된 채 형태만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비해 커다란 배와 유방이 이 작품의 포커스이다. 양 팔은 가슴 위에 위치해있고, 배는 둥글게 부풀어 있다. 양

10) 이 글에서는 대상 도서의 저자도 쓰기 않았고 서명도『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으로 잘못 썼다.

쪽 가슴위에 위치한 두 팔은 마치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연상되고, 둥글게 부풀은 배는 다산을 상징하며, 풍만한 가슴은 건강한 엄마의 모습이 연상된다. 가슴 위에 올려진 두 팔과, 가슴팍을 향해 내려진 고개 등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더욱 강조된다. … 두 번째로는 … 작가는 서양의 작품을 하나하나 서술하며 자신의 생각과 작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나 혼자만의 작품 감상이 아닌, 작가와 같이 감상을 하는 기분이 들어 좀 더 작품에 대해 깊고, 다양한 방면으로 그림을 해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양미술사의 100장면』 서평 -

이 글이 장르 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용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책을 읽은 후 간단한 소감을 표현하였지만 이 또한 개인적인 감상 표현에 불과하다. 서평은 비평적 글쓰기 장르로서 책 소개와 비평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글은 책에서 설명하는 조각 작품 중 인상적인 작품 설명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학생들의 서평 작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공통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글쓰기 초보자인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글의 분량 채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비평 쓰기의 어려움이나 회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0) **저자는 '국가란 무엇인가', '표현의 기술' 등등 여러 책을 출간한 한국의 실천적 지성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 출신 전 보건복지부 장관, 16대 국회의원이자 현재는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이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문학적 글쓰기보다 논리적 글쓰기를 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강의한 것들을 모아서 자세한 예문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며 수원중앙도서관에서 2016년 최다 대출횟수 2위를 기록했다. 이 책은 1. 논증의 미학 2. 글쓰기의 철칙 3. 책 읽기와 글쓰기 4. 전략적 독서 5. 못난 글을 피하는 법 6. 아날로그 방식 글쓰기 7. 글쓰기는 축복이다 8. 시험 글쓰기 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에서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그중에**

서 강조하는 부분은 논증의 미학과 못난 글을 피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논증의 미학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그중에 꼭 지켜야 한다는 필자만의 규칙이 있다. 첫째 :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분, 둘째 :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셋째 :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집중한다 가 있다. 논증의 미학이 살아있는 글을 쓰려고 하다간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제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논리적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질 텐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태껏 써왔던 글들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서평 -

이 글은『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읽고 쓴 서평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대상 도서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이다. 책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냉철한 가치 판단이나 비평을 핵심으로 하는 장르가 서평인데 이 글은 책의 일부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소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서평을 쓴다고 하면서도 비평보다는 책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평 장르의 이론과 핵심 특성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론한다. 또 한편으로는 글을 쓰고, 사고하는 피로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회피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짚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매우 짧은 자기 고백적 감상 표현을 마지막에 쓴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독서감상문식 표현이라는 점은 차치하고 짚을 수 있는 문제점은 서평에서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가치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평을 쓰는 데 있어 해당 도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근거 있는 기술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단순히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평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대학 신입생일

경우 자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점검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1)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내는 피로함

… 두 번째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머뭇거리는 능력을 꼭 필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의 저자는 기계가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머뭇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 먼저 기계가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불량품으로 취급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없을 때 머뭇거릴 수 있다. 하지만 기계는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기계는 감정 또한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계가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기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기계가 머뭇거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어리석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능력을 인간에게 적용해 본다면 머뭇거리는 행동은 망설이는 행동, 즉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을 때 인간은 머뭇거린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뭇거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근거 또한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를 머뭇거린다. 즉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있다면 머뭇거리는 행동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머뭇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로사회』 서평 -

서평의 비평은 저자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와 비교하며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비평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

이 글의 대상 도서인 『피로사회』에서 저자 한병철은 성과사회에서 긍정성의 과잉이 활동성을 자극하고 사색적 삶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에는 신경질환까지 일으킨다고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머뭇거림', '분노', '의문제기' 등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글의 이 글은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쓴 서평이다.

이 글은 제목에서부터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내는 피로함'이라고 하여 책의 저자가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로사회'라고 한다고 보고 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표출한다.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관점의 서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해석으로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독후감상문과 달리 학생 필자는 저자가 예로 든 일부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논리로 비판한다. 이 또한 대학생 서평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것은 서평을 쓰면서 '비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여과 없이 쓰는 글쓰기 습관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독서 훈련이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평은 책을 면밀히 읽고 저자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현실적인 교육 여건에서 글쓰기와 글읽기가 병행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학생 서평 분석을 통해 읽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

3) 올바른 어법 쓰기의 문제

의미 중심,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글맞춤법을 지키고 올바른 어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다소 약화된 경향이 있다. 그것은 한정된 글쓰기 교육의 현실적 여건 안에서 내용 구성과 풍부한 표현에 더욱 교육의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첨삭 지도에 있어서도 한글맞춤법이나 문법의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매끄러운 문장 표현에서부터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글의 이미지가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이 되는 글의 기본은 한글맞춤법과 문법을 지켜 올바

르게 표현한 글에서부터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작문에 나타나는 어법 오류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도 의미 전달과 이해에 장애가 되는 어법 오류는 상당수 나타났는데, 장황한 문장을 쓰는 것에서 비롯된 오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순이 바르지 않아 문맥 연결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또, 문장성분의 생략 혹은 누락, 중복으로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다. 이것은 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 속 현실에서 표준화된 화법 사용에 대한 언어 의식 상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짚을 수 있다. 학생들은 비어법적 언어 조합이나 지나친 언어 축약 등의 표현을 어법에 대한 인식 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어체 글쓰기에서도 그대로 쓰이면서 비문 발생은 물론이고 글 전체의 혼란을 유발한다. 주요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물리학적 용어와 같은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을 더 안 해줘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 누구에게나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책 목차를 1악장부터 4악장까지로 나누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었고** 음악적 요소가 함께 어울어져서 더욱 책이 색달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과학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을 읽고 현대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과학상식과 같은** 책이 더 많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세상에 대한 안목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서평 -

이 글에서는 문장성분 간 호응이나 문장성분 생략, 불필요하게 늘여 쓰기 등으로 문맥 의미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 다수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장은 '물리학적 용어와 같은 개념'이라는 표현이 어법상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며 '상세하게

설명을 더 안 해줘서'는 구어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인데 어순도 부자연스럽다. 또 문장성분 간 호응에서 '아쉬웠던 점은'과 '부분이 있었다.'의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읽게 되는 독자들'이란 표현이 의미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쓴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서'는 연결어미 '-아서'가 연속으로 쓰여 문맥이 부자연스럽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문두에서 같은 의미의 '그리고 또'가 의미없이 중복되었는데 이 또한 구어 표현 습관이 그대로 글쓰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었고'는 주체가 불명확한 표현으로 문장에서 문맥 연결이 어색하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에'가 생략되어 문맥 의미가 온전하지 않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처음 '이와 같은 과학상식과 같은'에서 '같은'이 반복되어 쓰인 것이 문맥을 장황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문장 말미의 '넓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도 불필요하게 늘여 쓴 장황한 표현이다.

(2)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환경운동가로써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에서의 16년이라는 **세월 이전의 저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진화라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하게 인식해왔다. 하지만 저자가 보고 **느꼈던** 라다크는 전통적인 문화로 안정된 가족공동체와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급자족이라는 특징을 가진 건강한 **사회이다.** 그 후 그녀는 라다크 사회의 모습을 보며 급격하게 진보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한 번 되돌아보고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관광객들의 많은 유입으로 돈의 용도와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던 라다크인들에게 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또한 발달한 서구의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라다크인들이 그 모습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들의 문화에 열등의식을 가지며 그러한 문화를 기피하며 부정하는 젊은 라다크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라다

> 크 사회는 점점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띄게되었다. 이러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라다크는 크나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에 대해 욕심이 생기고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거부하는 라다크인들이 점점 큰 도시로 **떠나가게 되면서 저자는 척박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던 라다크인들이 급속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오래된 미래』 서평 -

이 글은 모두 5문장이다. 이 중 200자가 넘는 문장이 2문장 있고 나머지 세 문장도 80~120자 정도이다. 첫째 문장은 장황할 뿐만 아니라 주어를 부적절하게 씀으로 문맥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전체 문장의 의미도 모호하다. 둘째 문장은 '느꼈던'과 '사회이다'의 시제 불일치로 문장이 부자연스럽다. 셋째 문장에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의 대상에 해당하는 문장성분 '~에'가 생략/누락되어 문맥이 부자연스럽다.[11] 다음에 이어지는 넷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도 해당 도서의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쓰면서 어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았다. 넷째 문장의 '이를 통해'는 '이로 인해'로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며, 마지막 문장에서 '떠나가게 되면서'와 이어지는 '저

11) 이를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환경운동가로서,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에서 16년 동안 살았다. 저자는 라다크에서 살기 전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화'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자는 16년 동안 라다크에서 살면서 생각이 변하였다. 저자가 보고 느꼈던 라다크는 전통적인 문화로 안정된 가족공동체와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급자족이라는 특징을 가진 건강한 사회였다. 그러한 라다크 사회의 모습을 보며 집필한『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에는 급격하게 진보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정도로 수정한다면 문맥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자는 척박했지만'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3) **이 책은 이 책의** 저자인 헬레나가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 **문화적으로 티베트에 속한** 라다크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쓴 책이다.** ... **이를 통해** 저자는 라다크와 같은 **사회를 통해 서구문명을 통해** 피폐해진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 만약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가 **생겨났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을 반대하는 운동가들처럼 부정적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서구문화들이 접해져있고 받아드려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수용된 서구문화의 장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면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 『오래된 미래』 서평 -

이 글의 문제는 동일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 부자연스러운 문맥이 형성된 것이다. 첫째 문장에서 '이 책은 이 책의'가 중복 표현으로 어색하고 '문화적으로 티베트에 속한'은 문맥에서 불필요한 장황한 표현이다. 둘째 문장에서도 '~를 통해'가 반복 사용되어 어색하다 셋째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어도' 정도의 표현을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가 생겨났어도'로 장황하게 표현한 데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이 반복 사용되면서 문맥의 부자연스러움이 더욱 커졌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쓰는 등 장황한 표현으로 역시 문맥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4) … **그리고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이곳 아이들에게 작은 씨앗들을 미리 뿌려 놓으셨군요. 당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싹을 잘 틔울 수 있게 물과 거름을 잘 챙겨 주겠습니다.'**라며 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가 수단을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그는 가장 가난한 곳에 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 오직 사랑만이 희망인 것을 삶을 통해 잘 보여 주었던 것 같다.**

-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서평 -

이 글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이 맞지 않아 문맥이 부자연스럽다. 문두의 주어 '그는'과 술어 '확인할 수 있다.'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접속부사 '그리고'도 문맥에서 잘못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주어 '그는'은 술어의 목적어로서 '~모습에서 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하여야 자연스러운 문맥이 형성된다. 마지막 문장도 '제목과 같이'나 '삶을 통해 잘 보여 주었던 것 같다.'는 불필요하게 늘여 쓴 장황한 표현이다.

(5) … **먼저 라다크라는 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티베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종종 '리틀 티베트'라고 불리며 날씨가 매우 변화무쌍하며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라다크 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지와 함께 하는 삶이다.** …

-『오래된 미래』 서평 -

이 글은 적절한 맥락에서 끊어 쓰기를 하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 씀으로서 문맥 의미가 모호해진 예이다. 이 문장에서 문장성분의 어순을 수정하고 끊어 쓰기를 적절히 한다면 보다 분명한 의미로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이다.[12]

(6) 우리는 왜 스스로 자학을 강요하는 것인가

현대인의 13세 이상 인구 중 54.7%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기계로 인해 시간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서는 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피로사회』 서평 -

---

12) 문화적인 측면에서 티베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종종 '리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라는 지역은 날씨가 매우 변화무쌍하며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의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라다크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지와 함께 하는 삶이다.' 정도의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문맥 의미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예이다.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서 맥락의 의미가 납득될 수 있는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셋째 문장에서도 '시간이 절약되는 것'과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적 연결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7) … 먼저 라다크의 인구가 **괭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라다크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었던 가족공동체와 유대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상호 간의 친밀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

-『오래된 미래』 서평 -

이 글은 부적절한 표현 사용으로 문맥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장황한 문장이 된 예이다. 문장에서 '증가했으며', '시작했으며'로 동일한 연결어미 '-으며'가 쓰여 문맥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문장의 전반부에 쓰인 '이를 통해'도 앞 문맥 '증가했으며'와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 쓰고 문맥에 맞는 연결어미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4) 기타

이 외에도 학생들의 서평 작문에는 서명(書名)이나 저자명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서평으로서 결정적인 오류도 나타난다. 또 글의 제목과 서명(書名)이 같은 오류, 글 전체가 모두 책의 내용 인용으로만 되어 있는 오류 등이 있었다. 이는 장르 인식이나 내용 구성력, 표현력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1) 서명(書名)과 저자명이 없음
(2) 서명(書名)을 글 제목으로 씀

(3) 글 전체가 비평 없이 내용 인용만으로 이루어졌음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생 작문의 오류 양상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는 구어와 문어 사용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것을 짚을 수 있다. 일상의 구어 표현이 글을 쓸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필자 중심의 글쓰기 습관 때문이다. 이는 글을 쓸 때 대부분 경험하는 오류 양상으로, 필자만 이해하는 표현의 의미를 독자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글쓰기 습관이다. 이러한 습관은 글의 전체 오류 현상에 대해 오류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여 장황한 문장, 문맥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 구어체 문장 등이 무분별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퇴고의 과정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글을 쓰면서 분량을 채워 쓰는 것을 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장르나 어법 차원에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업 생활 중 과제로 주어진 글쓰기인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대학마다 글쓰기 상담기관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다. 이에 교수자의 퇴고하기 독려와 함께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기관이나 교수자의 피드백이 학습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퇴고 습관을 만들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글을 퇴고하는 능력은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글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퇴고하는 습관이 글을 보는 안목도 넓히고 소통되는 사회적 글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글쓰기 수업 활동 제안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그 실효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글쓰기 교육이야말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다양한 방식의 글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13] 서평의 경우, 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 글을 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것이 '서평'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러한 학습자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글쓰기능력의 향상을 위해 본고에서는 '작문 분석 활동'을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하나인 문제기반학습(Probelm 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 방법이다. 이것은 장르별 예시 작문을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형식을 취하면서, 주어진 예시 작문에 대해 내용 구성과 형식적인 측면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14] 서평의 경우, 내용 정보, 형식 정보, 평가 정보가 올바른 어법을 지키며 맥락과 문맥이 자연스럽게 쓰였는지 등을 그룹 단위에서 협력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도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평 분석이라면 장르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작문 분석 활동은 소통적 글쓰기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글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책을 읽고 해야 하는 독

---

13) 이와 관련하여 박영식(2015:365)에서는 "학습자가 보다 많이 실습하고 교수자가 다양한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글쓰기 항목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장르를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라 교수자가 집중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14) 작문 분석 활동은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문 분석 활동이 퇴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수업 중 작문 분석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 토론에 비해 이와 같은 작문 분석 활동은 장르를 이해하고 글의 표현법을 익히는 데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15]

간략한 '작문 분석 활동' 글쓰기 수업 진행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6]

1) 활동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 학습 서평의 개념과 특성 이해와 정리 서평의 핵심 이론 숙지 2) 장르 기반 작문 내용 분석 한 그룹별 인원을 6명~8명 정도로 하여 교수자가 제시하는 작문을 분석한다.[17] 개인별로 작문을 정독한 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한다. 교수자가 서평으로서의 내용 구성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제시한다.[18] 학습자는 제시 상황에 따라 협력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그룹별 발표를 통해 작문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19] 3) 장르 기반 작문 형식 분석 교수자가 작문의 형식적 표현 측면에서의 분석을 제시한다. 학습자는 제시 상황에 따라 협력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그룹별 발표를 통해 작문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15) 다만, 시간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교육의 장애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조율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6)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업 모형은 1주 2시수 전체 15주 수업 일정에서, 장르별 3주 6시수 수업 진행으로 잡은 것이다. 처음 2시수는 장르 이해를 목표로 한 이론 학습을 한다. 장르별 2000자 내외 분량의 작문 2~3편에 대한 분석 활동과 조별 발표, 교수자 피드백 등은 4시수 진행한다. 40명 인원 수업일 경우 6~7그룹의 분석, 발표는 독서 토론과는 달리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학습자 참여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 수업 모형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는 차후 과제에서 다시 밝힐 것이다.

4) 교수자 피드백과 정리 서평 장르 이론을 적용하여 작문의 내용과 형식을 첨삭 설명한다.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 발표와 토론에 대한 전체적인 강평을 한다.

6. 마무리

본고는 대학생 서평 작문 102편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하였다. 작문 분석에 앞서 살펴본 학습자 요구는 크게 '장르에 맞는 글쓰기'와 '올바른 어법의 글쓰기'로 구분되었다. '장르 글쓰기'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장르 인식을 가지고 글쓰기에 임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작문 분석에서 파악한 학생들의 장르 쓰기 문제점으로는 해당 도서의 줄거리, 저자 등 정보의 단순 나열과 내용 인용이 주된 독서보고서식 쓰기, 개인적, 자기 고백적 감상 중심의 독후감상문식 쓰기, 해당 도서 내용에 대한 피상적인 단순 해석의 쓰기, 경어체 쓰기, 구어 표현 등이었다. 올바른 어법 쓰기의 문제점으로 문장과

17) 글쓰기 수업의 수강생이 대체로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6~8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40명 정원의 수업일 경우 5~6그룹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18) 문제기반학습 PBL(Probelm Based Learning)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협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이다. PBL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촉진자,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교수자가 활동의 초점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활동 부담을 덜고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19) 여기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한 작문 내용 분석은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학습자 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단락과 단락 간 의미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의미의 모호함을 유발하는 장황한 문장 쓰기, 문장 성분의 생략이나 호응의 불일치로 문맥이 어색하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 쓰기 등이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 작문의 오류 양상에 대한 원인으로 구어와 문어 사용에 대한 변별력 부족, 필자 중심의 글쓰기 습관, 면밀한 퇴고 과정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본고는 학생들 스스로 퇴고하기의 습관을 길러 장르와 어법에 맞는 글쓰기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글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퇴고하는 습관이 글을 보는 안목도 넓히고 소통되는 사회적 글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글쓰기 수업 활동의 하나로 '작문 분석 활동'을 제안한다. 이는 학습자 참여 중심수업인 문제기반학습(Probelm Based Learning) 방법에 해당한다. 서평 장르 이론을 학습한 후 학생들은 장르별 예시 작문을 형식적, 내용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분석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글을 보는 안목과 쓰기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논문

구자황, 「대학글쓰기 교육의 반성과 전망」,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36, 2014, pp. 163-180.

김경훤, 「대학 글쓰기 교육의 첨삭 지도 사례」,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83, 2009 pp.27-55.

박영식, 「학습자 중심 글쓰기 교과커리큘럼 개선 방안–경북대학교 〈사회과학 글쓰기〉 교과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배달말학회, 『배달말 57』, 2015, pp. 49~373.
박준범, 김정화, 「글쓰기의 관점에서 본 "읽기, 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향방–영남대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60, 2010, pp.215–250.
오세영, 「학문적 글쓰기 과정의 분석 방법 연구」, 한국작문학회, 『작문연구』 28, 2016, pp. 179–211.
조윤아, 이상민, 「동료첨삭의 언어적 행동 및 글쓴이 반응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70, 2014, pp. 333–366.
주재우, 「장르 중심의 쓰기교육 연구 – '자서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국작문학회,『작문연구』14, 2012, pp. 137~158.
홍윤기, 유호,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관형사절 사용 능력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74, 2015, pp.177–202.

2. 단행본

박이문,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 pp.138~141, 베스트프렌드, 2008.
최현섭 외, 『구성주의 작문교수 · 학습론』, 박이정, 2000.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서수백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주소: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전화번호: 053) 850-3182
전자우편: sbseo93@cu.ac.kr

[Abstract]

A Study on College Students' Composition Analysis Based Writing Education

Seo, Su-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ook review compositi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nd suggest effective teaching method. this begin from need writing ability communication with readers in social writing angle. first analysis of learners' needs about writing and grip of the situation by Book review compositio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process need for preparation effective teaching method. Analysis result, extremely much showed writing like reading report. except there are problems writing like impressions of a book, writing like interpretations by simple concept about a book, wrong expression on book review, writing meaning ambiguously by long sentence. This study suggest group genre example composition analysis activity as a effective teaching method. this for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genre rather than writing. students speak own views freely form and substance of example composition after learning book review theory. students will improve have an eye for composition through this activity.

Key words: genre, book review, grammar, communication, need analysis, composition analysis activity